

江原日報

사상 첫 재택 모의고사...수험생·학부모 불안

기사입력 2020-04-27 00:33



사상 첫 재택 모의고사...수험생·학부모 불안 사진=연합뉴스

전국단위 채점·성적 처리 안 돼 수시·정시 대입 전략 마련 난항

속보=고3 재택 모의고사가 시행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불안감(본보 지난 22일자 4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3의 올해 첫 모의고사가 집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단위 채점 및 성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시, 정시에 대한 방향 등 대입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말이 지나도록 온라인 수업만 이어지고 있어 과목별 세부특기사항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학생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부족하다. 학생부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수시에서 고3 재학생이 재수생이나 반수생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가뜰이나 불리한 정시에서도 재학생들이 재수생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고3 재학생은 44만5,4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대학 정원은 지난해와 비슷해 올해 대학 신입생들의 반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학부모 A씨는 "겨울방학 때부터 수개월 동안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아이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시와 정시 모두 고3 재학생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석기자

© 강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7&aid=0000796643>
